

<2022년 2월 10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시작과 끝이시다. 처음과 나중이시다.
2.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라는 말씀은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를 모두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다.’ 라는 뜻이다.
3.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씀은 ‘처음에도 하나님이 하시고, 나중에도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뜻이다.
4. 성령길을 뉘을 때도 처음에 시작하는 곳을 어디로 내라고 측량해 주시고, 나중에 끝나는 지점도 어떤 방향으로 뉘아가라고 끝 부분을 가르쳐 주셨다. 역시 시작하는 곳부터 끝나는 곳까지 가르쳐 주시며 전체를 주관해 주셨다.
5.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령님은 처음부터 나중까지 구상해 주시고,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구상을 이루게 하신다.
6. 주도 육신이기 때문에 전능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일인 고로 그대로 하지 못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삼위일체의 구상대로 행하게 하시어 결국 그 뜻을 이루신다.
7. 기도와 말씀의 해다. 항상 기도해야 되고, 말씀도 받아야 된다.
8. 꿈에 어떤 흰옷을 입은 어른에게 기도하느라고 잠언을 못 받았다

고 했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깨고 나서, ‘기도하면서 잠언도 받아야 되겠구나.’ 생각했다. 잠언을 받다 보면 기도를 못 하게 되니, 그동안 기도만 한 것이었다. 오늘은 말씀인 잠언도 받고, 기도도 해야 된다고 깨달았다.

9. 올해는 기도와 말씀의 해다. 그러므로 기도와 말씀, 두 가지를 모두 행해야 된다.